

긴 가뭄·폭염에 논밭도 농심도 타들어 간다

농어촌공사 "영북 9개 저수지 평균저수율 33% 불과" / 지자체·농업인, 가뭄장비 총동원 농업용수 공급 안간힘

뉴스일자: 2025년07월14일 14시36분



최근 강수량 부족으로 극심한 가뭄과 폭염이 계속되면서 농업용수 확보와 농작물 재배에 비상이 걸렸다. 한국농어촌공사 영북지사(지사장 박미란)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4일까지 누적 강수량은 속초 265.4mm, 양양 163mm, 간성(고성) 260mm로 나타났다. 이는 평년(기상청이 집계한 최근 30년 평균)의 57.1%, 36.9%, 53.2%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영북지사 관할 저수지 9곳의 평균 저수율은 지난 10일 기준 33.3%로 평년(72.4%) 대비 46.0% 수준에 머물고 있다. 고성 원암저수지(저수율 23.6%)와 도원저수지(29.3%), 양양 현남저수지(33.85%)는 평년대비 40% 이하인 심각단계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영북지사는 △도원·원암·설악저수지는 2일 급수 2일 단수 △화곡·인정저수지는 1일 급수 1일 단수 △송강·현남저수지는 제한급수 등의 간단급수를 시행 중이다. 지방자치단체들도 계속되는 폭염과 가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유관기관들과 협력해 농업용수 공급에 집중하고 있다.

속초시는 가뭄대책 상황실을 두고 영농상황을 살피며 비상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벼농사(수도작)는 현재 벼 이삭이 올라오는 출수 전 수잉기(이삭을 뽀시기)로 농업용수를 많이 필요로 하는 시기다. 원암(학사평)저수지 수계하단인 노학동 이목·도광·신흥리와 청대들 일부 등 30헥타르(ha)의 논이 가뭄 피해를 입고 있다. 밭작물은 정식시기 및 생육이 늦춰져 수확량 감소가 우려되고 있다.

시는 예비비 1억여 원을 확보, 살수차량을 임차해 가뭄피해지역에 농업용수를 긴급 공급하고 있고, 취수원 확보, 간이용수원 개발, 양수수송 자체 구입, 양수기유류비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병선 시장은 지난 8일과 11일, 소야별 등 관내 농지와 금호교 취수정, 이목리 일원을 찾아 농업용수 공급 상황을 점검한 뒤, 신속하고 체계적인 용수 공급을 당부했다.

고성군은 지난 10일 오전 군청 재난상황실에서 유관기관들과 긴급 가뭄대책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군은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읍면별 가뭄 실태를 수시 점검하고, 가뭄 가능한 양수 장비와 산물 진화 차량을 투입해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향후 가뭄 단계별 대응계획에 따라 이달 중 '농업재해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예찰 활동과 현장 대응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양양군도 지난 8일 오전 군청에서 긴급 재난대책회의를 연 데 이어 가뭄대책 종합상황실을 매일 오후 9시까지 연장 운영하고 있다. 군은 굴삭기를 활용한 하상굴착, 농가에 양수기 70여 대 임대, 살수차(6대) 및 산물진화차량(6대) 투입 등 보유 중인 한해장비를 총동원해 농업용수 확보와 밭작물 살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은 농업재해 관련 긴급예산 2억8,200만 원을 확보해 소형관정 50공 긴급 굴착, 대형관정 수리, 장비 임대, 농업용수 송수호수 등 농기자재 구입 등을 추진하고 있다.